朝鮮日報 (日刊)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三月二十日 THE CHOSUN ILBO 조선일보 (水曜日) (西紀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七千卅七號

朝鮮日報

發行印刷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代表電話 本局 一八一一 · 七九〇 · 八八 · 一八五六
月極料金廿五圓

社說 美蘇會談再開

美蘇共同委員會는 二十日 正式會談을 始作한다. 이 會談은 朝鮮의 運命을 決定할 歷史的 重大 會議일 뿐 아니라 戰後處理의 重大한 案件의 하나인만큼 直接關係를 가지고 잇는 三千萬, 겨레는 말할 것도 업시 國際的 視聽이 서울의 이 會談으로 集中되어 잇다 할 수 잇다. 우리는 지난번에 열리엇던 準備會談이 期待에 어그러젓던 것을 歎할 마음의 餘裕도 가지지 못하고. 이번 正式會談에만 全幅的 希求를 밧치는 바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會談의 目的이 三八度線 撤廢와 完全自主獨立을 決定짓는데 잇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會談으로 卽時 朝鮮이 곳 獨立되는 것이 아니오 莫府三相會議에 依한 順序的 次例가 잇슬 것이지만 朝鮮問題를 解決하는 前提는 三八度線 撤廢에 잇다고 본다. 三八度線 論者에 잇서서는 政府樹立後에 三八度線 撤廢를 云爲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는 先後倒錯이라 하니 할 수 업다. 兩斷된 채 어찌 南北統一을 期하겟는가 是非曲直을 論難할 閑暇를 가지지 못할 만큼 焦眉의 急事가 三八度線 撤廢라는 것은 三尺童子라도 부르짓고 잇는 것이다. 우리를 解放시켜준 聯合國 特히 美蘇兩國이 어찌 이 嚴然한 事實을 몰른다고 할 수 잇슬가 國境이 아니면서 國境以上으로 分斷된 朝鮮을 하로 바삐 더 노라 이것이 곳 朝鮮을 살리는 길이오 世界平和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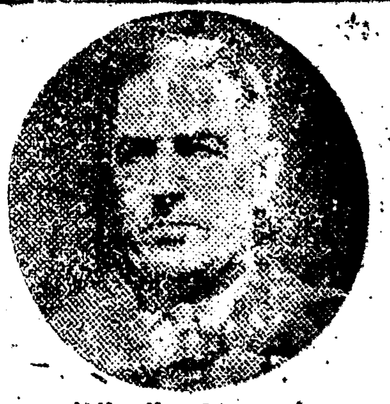
三

戰後處理問題로 現下의 世界情勢는 바야흐로 第三次大戰을 豫想하는 神經過敏者가 생기게 될 만큼 複雜微妙한 것을 否認할 수 업다 따러서 「이란」에 잇서서의 蘇聯對美英, 滿洲에 잇서서의 美蘇의 對立이 올러 三八度線을 境界로 한 朝鮮에 잇서서도 美蘇關係를 걱정하는 傾向이 不無하다. 勿論 朝鮮만의 問題를 世界의 關聯性업시 보게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잇다 그러나 그러라고 우리는 우리의 正當한 主張인 三八度 撤廢와 更生의 欲求인 自主獨立을 抛棄할 수 업는 것이다. 理論은 理論이오 主張은 主張이다 美蘇正式會談이 열니는 오늘 우리 三千萬은 兩代表에게 明確히 이 點을 바라는 바이다.

美蘇會談오늘부터다시開幕

朝鮮의運命을俎上에

午後一時! 우리의總關心德壽宮으로



아-놀드美代表

朝鮮의 運命을 決定할 美蘇共同委員會 正式會談은 그間 여러가지 錯雜한 事情으로 豫定보다 一週日間이나 延期되엿다가 드듸어 世界의 視聽을 總集中한 가운데 今卄日 午後一時부터 由緖깊은 德壽宮 石造殿에서 美蘇 두편 首席代表 아-놀드少將 · 슈티코프中將等 十名의 代表가 동이가운데 開幕하기로 되엿다

슈티코포蘇代表

이번 會談期間中에는 前番 一次會談에서 決定안된채로 保留된 當面한 諸問題 그中에도 懸案의 三十八度線障壁撤廢를 中心으로 한 一、南北兩地域間朝鮮人旅行問題 一、兩地間鐵道 自動車 沿海岸海運問題 (一)지난번 開城서 交換된 第一種郵便物協定以外 第二 三種(新聞、雜誌、刊行、印刷物)郵便物交換問題 (一)兩地間의 「라디오」放送電波問題 (一)南北兩地物資交流(米穀、石炭、肥料等) (一)電力供給等緊急適切한 諸問題와 三相會談共同聲明 第三條第二項에 依한 「過渡政權으로서의 民主主義的 臨時政權樹立」等 過渡期인 今日에 잇어서 三千萬이 다갈이 焦燥渴望하야 마지안는 여러가지 宿題를 俎上에 올려노코 愼重히 討議할 것으로 豫測되는 同時 압흐로 數日間의 同會談經過는 三千萬注目의 焦點이 되어 잇다 이번會談에 參席할 美蘇兩側首席委員以下 委員名簿를 十八日 軍政廳公報局에서 다음과 갈이 發表하엿다

美側代表=△首席委員 前南朝鮮美軍政長官 아-치발드·뵈·아-놀드少將 △委員 헬리암·R·랭돈 △찰스·W·데이어- △R·H·부-스大佐 △프렝크·H·뿌리톤大佐

蘇聯側代表=首席委員 陸軍中將 트렌티·포밋치·스티코포 △委員 니코라이·조제비치·레버데프中將 △세미온·콘스탄치노비차·차랍킨 △게리샵·말리노부이치·빨라사노브 △치콘·이바노비치·카-룰레케中佐

美蘇會談에期待

韓國民主黨發表

韓國民主黨宣傳部長 咸尙勳氏는 十九日午前十一時 定例記者會見席上에서 다음과 갓이 談話를 發表하엿다

一、美蘇共同委員會는 二十日부터 開會하게 된다는데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에서도 이에 參席하야 發言할 것으로 밋는다. 民主議院은 朝鮮全國民의 總意로서 選擧된 사람인만큼 이것을 支持하야 우리臨時政府樹立에 盡力하지 안으면 안되겟다

一、政黨登錄法이나 新聞紙法令을 民主議院에서 制定햇다는 것은 誤傳이오 李承晩博士가 北朝鮮의 曺晩植을 擁護하고 돈을 냇다는 外電도 全然 虛言이다 이것은 某政黨의 謀略的 宣傳임에 틀림없다

世界的重大會議

民族戰線宣傳部에서發表

「民戰」宣傳部에서는 十九日正午에 二十日부터 열리는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하야 今番會談에 잇어서는 무엇보다도 臨時政府樹立의 決定的 成果가 잇기를 바란다는 다음과 갈은 要旨의 發表가 잇엇다

朝鮮의 民主主義臨時政府樹立을 援助한다는 世界平和政策의 一環으로서 朝鮮에 그 實施具現의 길을 열게 되엿으니 美蘇會談은 朝鮮의 將來에 對해서만 重大한 會議가 아니라 世界史的 見地에서 이 會議의 重大性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前番 軍政廳 發表에 依하면 意見의 差異와 多少未盡한 바도 잇는 모양이나 우리가 要求하는 바는 經濟、交通、運輸等 枝葉的 問題보다도 當面의 急한 原則的 先決問題는 過渡的 臨時政府樹立인 것은, 두말할 餘地도 없을 것이니 이번 會談에서는 過渡的 臨時政府樹立의 決定的 成果를 우리는 切實히 要望하는 바이다

美第七師團長

뿌루쓰少將任命

今日부터 열리는 美蘇共同委員會 美側首席代表 第七師團長 「아-놀드」少將은 얼마前부터 同委員會事務에 專力키 爲하야 美軍朝鮮駐屯憲兵司令官 「스퀴워드」代將이 兼任代行하고 잇엇는데 이번 「앤드루·D·뿌루스」少將이 第七師團長으로 正式任命되여 月內로 着任하리라 同時에 「스퀴워드」代將의 兼職은 解任되엿다 新任師團長은 第一、第二 兩次世界大戰에 參戰하야 赫々한 武勳을 세운 武人이다

會談의成功確信

美蘇共同委員會와 러-취長官談

軍政長官 「러-취」少將은 十九日午後三時 軍政廳第一會議室에 市內各新聞通信社主幹及編輯人을 招請하야 言論의 正確性을 高調하고 이어서 美蘇共同委員會는 絶對로 成功할 것을 밋는다 또 將來樹立될 政府는 美國이 願하는 政府도 아니오 蘇聯이 願하는 政府도 아니오 朝鮮사람이 願하는 政府로 될 것을 밋는다고 重大한 言明을 하엿다 【寫眞은 「러-취」長官】

韓國臨時政府樹立과同時

美蘇兩軍은곳撤退가當然

華府朝鮮紹介協會에서聲明

【華盛頓十八日發AP合同】當地朝鮮事情紹介協會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려하는 美蘇會談에 對하여 다음과 갈이 聲明을 發表햇다

우리는 美蘇軍事共同委員이 朝鮮으로부터 兩軍撤退를 促成에 對하야 努力하기를 願하는 바이며 朝鮮問題는 朝鮮사람이 解決하도록 할 것을 要求하는 바이다 三月六日에 開催될 第二回美蘇共同委員會의 延期는 朝鮮의 獨立을 遲延하는 것이다 우리는 朝鮮問題解決을 爲하야 다음의 事項을 提議하는 바이다

一、三十八度線을 可及的 速히 撤廢하야 人的 物的 自由交流를 促成시킬 것

二、美蘇共同委員會는 朝鮮의 臨時政府를 可及的 速히 實現하도록 努力할 것을 아끼지 말 것 그러나 臨時政府樹立計畫에 잇어서 共同委員은 制限을 加하지 말 것이며 또 蘇聯이나 美國政府의 技術者를 依賴하고 韓國한 指導者의 影響을 밧지 않을 것

三、臨時政府樹立時에는 兩軍이 同時에 卽時撤退할 것 이것은 朝鮮이 敵國이 않이요 占領을 當할 理由가 存在치 안는 까닭이다

四、臨時政府樹立時에는 朝鮮再建設을 爲하야 必要한 顧問技術者를 選擇하는 權利를 承認하는 同時에 不適當不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顧問技術者의 解任의 權利를 承認할 것

우리는 朝鮮問題解決與否의 希望을 美蘇共同委員會에 期待하고 잇는 바이며 萬若共同委員會가 여기에서 失敗한다면 朝鮮은 朝鮮問題를 「U、N、O」에 提出할 수 박게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朝鮮의 自由와 安全은 世界의 自由와 安全으로부터 分離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기 때문이다

民主議院臨時政策

(一) 全國民의 完全한 政治的 經濟的 敎育的 平等의 原則을 基礎로 한 獨立國家의 均等社會를 建設함

(二) 正式政府는 可及的 速히 普選制度에 依한 國民議會를 通하여 建立하고 普選에는 男女 滿二十歲以上된 者는 選擧權이 잇고 滿廿五歲以上된 者는 被選擧權이 잇음

(三) 眞正한 民主的 憲法을 制定하여 言論、集會、信敎、出版及政治運動等의 自由를 保障함

(四) 日本이 韓國에 實施하던 法律과 制度는 一切廢棄함

(五) 敵産及反逆者의 財産은 公私有를 勿論하고 沒收함

(六) 最速限度內에 우리의 經濟와 産業을 再建하고 重要한 日用品을 速히 生産하기 爲하여 計劃經濟를 實行할 것

(七) 主要한 重工業 鑛山 森林 公益施設 鐵道 通信 水利 漁業 電氣及 運輸機關等은 國營으로 함

(八) 消費者와 販賣者와 生産者에 對한 公正한 利益을 保障하기 爲하여 모든 商業的及産業的 企業은 國家監督制度를 制定함

(九) 모든 沒收土地는 農民의 耕作能力에 依準하여 再分配함

(十) 大地主의 土地도 同一한 原則에서 再分配함 (現所有權者에 對하여는 適當히 報償)

(十一) 再分配된 土地에 關한 代價는 國家에 長期的으로 辨納함

(十二) 社會奢侈와 高利貸金을 禁함

(十三) 健全한 通貨制度의 確立

(十四) 모든 重要한 生活必需品은 適當한 時期까지 一切價格을 統制하고 配給制度를 實施

(十五) 徵稅制度를 制定하여 貧窮한 勞動者와 農民에게는 完全히 免除하며 零細農地에 對한 課稅를 撤廢

(十六) 租稅의 制度를 高度의 累進率로 定함

(十七) 國家의 負擔으로 義務敎育制度를 實施함

(十八) 國家負擔으로 民族文化를 發揚시킴

(十九) 모든 勞働者와 雇傭人을 爲하여 失業保險과 社會保險制度를 制定함

(二十) 最低賃金法을 制定함

(二十一) 勞働의 國家統制를 實施하고 모든 勞働者와 農民과 雇傭人의 福利를 爲하여 適當한 公共厚生施設을 設置함

(二十二) 十四歲未滿 小兒의 雇傭을 禁함

(二十三) 모든 婦女와 十六歲未滿 小兒에게는 六時間, 壯丁勞働者에게는 八時間 勞働制度를 確立함

(二十四) 生産業에 對한 國家的 援助와 社會的 補助를 施함

(二十五) 自由를 愛好하는 모든 나라들과 友好關係를 結하며 互惠의 通商을 平等互惠原則下에서 施行하되 어떠한 나라에게든지 特權을 주지 않을 것

(二十六) 어느 一個國이나 幾個國으로써 우리 主權을 侵害하지 못하도록 防備할 것

(二十七) 適當한 陸海空軍 國防軍을 設置함

「局」을部로

軍政廳各局課改稱

軍政廳의 機構改革은 遞信鑛工局을 商務局 農商局을 商務局 農務局으로 改變하고 公報課를 公報部로 昇格식힌 後 繼續하야 各局課의 名稱改善을 다음과 갈이 決定하고 近日中 이를 法令으로 發布하게 되엿다 (括弧內는 以前名稱)

▲官房=(人事行政處 企劃處 總務處 會計處 外務處 地方行政處 財産管理處 軍政處…以上 「處」는 以前 「課」의 改稱) ▲司法部=(法務局) ▲財務 學務 警務 保健厚生 鑛工 農商各局을 各部로 改稱

二中全會閉幕

國民黨六項目發表

【重慶十九日UP發朝通】十八日國民黨에서는 黨中央執監委員會第二次全體大會의 閉會에 當하여 六項目으로 된 宣言文을 發表하엿는데 그中에는 主權의 保障 世界平和의 强化 聯合國特히 中國과 國境을 連接한 蘇聯과의 完全한 理解와 緊密한 協助等이 强調되여 잇다

官軍과一戰

⑧ 哀惜·衆寡不敵으로慘敗

韓末義兵史

檜山 樵夫

李勝宇는 民間義兵을 徵募하기 爲하야 밤중에 東門을 뛰어넘어 城內를 一周하고 蕃衆中에 넘코 부비면가 부가 되다고 하엿다 그後 李勝宇는 令을 나려 城을 修築케 하니 六房官屬이 奔走承命하야 民夫를 徵發하야 修城의 巨役을 短期에 맛첫다 하다 甲午九月에 瑞山泰安等郡의 東徒가 所謂 「망석말이」 聚軍法이라 하야 「村村家家」에 壯丁을 빠짐업시 뽑아내여 斥洋斥倭를 揚言하며 禮山으로 길을 取하야 京城에 赴코자 하는 때 群衆이 數十里에 亘하야 氣勢가 매우 强大하엿다 이에 洪州牧使 李勝宇는 官軍을 調發하야 中軍 金德敬으로 하야금 禮山에서 이를 邀擊케 하엿더니 金德敬이 山城 및 대陣을 머물고 對戰하다가 衆寡不敵하야 畢竟 官軍이 敗하고 金德敬이 戰死하니 卽 十月二日이엿다 東徒가 勝勢를 치고 저 進路를 도리커 洪州로 直向하엿다 東徒는 銃口生水를 信賴하야 조금도 顧慮하는 빗치 없고 洶々 城下에 肉迫하야 一擧에 全城을 짓밟고저 하거늘 이에 李勝宇는 軍中에 號令하야 火砲를 一齊發射하니 群衆이 「삼대」 갈이 쓰러져 死者多數에 負傷者가 太半이엿다 東徒가 敗走함을 보고 官軍이 이를 「追擊殲滅」 하고 各郡에 諭令하야 東匪를 搜捕하고 民衆에게는 歸化證을 주어 安堵케 하니 遠近이 漸次 鎭靜하엿다 捷報가 朝廷에 이르매 李勝宇를 招討使에 進級하고 또 다시 觀察使를 拜하고 洪州郡을 府로 昇進하야 管下 十七郡을 統轄케 하니 이에 李勝宇의 威名이 四境에 떨치게 되엿다 高宗三十二年 乙未 八月 廿日에 日兵이 景福宮에 擁入하야 明成皇后를 慘殺하고 屍 그形跡을 湮滅키 爲하야 體를 燒燼하얏슴으로 朝廷은 十月에 이르러 비로소 國喪을 頒布하엿다 十一月에 金弘集等 改革黨이 高宗을 脅迫하야 斷髮令을 發布하고 因하야 全國에 斷髮令을 나리니 이때 韓國은 鎖國主義에 民衆이 頑固하고 世界文物을 接觸함이 없어 다만 守舊思想이 깁흔 것으로 人心이 恟々하엿다 그럼으로 政令이 施行되지 안음뿐 안이라 갓득하면 身邊에 危險까지도 늣겨게 되는 때이라 洪建은 이를 譎計로써 制禦하리라 하고 하루 아참에는 收使와 侍童하는 通引을 가마니 불럿다 「간밤 使道가 京城서 일즉 오셧느냐」 하자 通引이 驚怪하여 對答하되 「京城이 여기서 三百餘里요 初저녁까지도 東軒에 잇엇고 새벽에도 자리에 누엇는데 京城서 오단 무슨 말인가」 하자 洪은 말하기를 「네가 모르는 말이다 使道는 元來 縮地法을 잘하는데 京城은 不過數時間에 往復한다 어제 나더러 京城에 急務가 잇어 잠간 단여오겟다 하더니 그럼네 기집든 동안에 往復할 모양이다 차차 보면 自然 알것지」 通引이 이상히 여겨 그 意味를 살피더니 무미레 이슬저슨 草履一雙이 숨어 잇는 것을 發見하니 이는 洪이 미리 準備하여 두엇던 것이다 通引이 事實을 洪에게 告한대 洪이 말하되 「그러치 다녀오셧슬러이니 그러나 나는 네가 親近함으로 使道出入與否를 알려 하다가 自然이 이런 말이 낫으나 이 말이 外間에 알려저서는 못쓰니 부대 愼口하라」 洪은 通引을 利用하야 이런 말을 퍼트리기 爲함이엿다 果然 몃칠 아니되야 六房諸吏 長房使令 城中市民까지 全部 수군수군하게 되엿다 그後 洪은 또 이러한 말을 傳布하얏다

……계속……

高麗尾參大量入荷

一流製藥會社新藥
有名賣藥
局方藥品
衛生材料

東海貿易藥品商會

光化門郵便局前 電光(3)三元九八番
營業所 서울鐘路一丁目八番地
倉庫 서울鐘路一丁目十五番地

日人土地의放賣는 朝鮮人을爲한計畫

肥料難打開에도全力傾注

러ー취長官談

일인재산방에 무허가 학교폐쇄、비료난(肥料難)등가장민중이 관심가질문제에대하야 삼九일 『러ー취』군정장관은기자단에게다음과같이대답하였다

문 일인재산방매에대하야 각정당에서는 조선에 통일정부가될때까지 보류하여달나는여론이있는데

답 각정당의 의견을존중하고 보류해도좃타 그러나 조선인농부와 장내의정부에게 유리한계획인것을아러야한다 그리유는 땅없는농부들이 자작농이되여 자기땅에서 경작할수있게되고 장기간의농작물로써갑흐면 빈한한농부는 내것이되는것이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상당한량(量)의농작물이돌어와서 그것을적당히처치하게된다 군정청에서는 이번에 일인재산방매에대한정책으로써 조선이완전하고 조춘출발을、하게되는것으로생각한다 그런고로나의 의견은 방매의보류는 조선경제를 지체시키는것으로안다

문 허가없는학교를 회수하는것은 조선의교육기관이부족한현상에비추어 모순되지않은가

답 사립학교경영은 통특으로허가하고있는데 그동톡은 어려운것이아니다 만일학교가 정적하고 자격이구비되었다면 적당한 양식 서식을 갖추어서 당국에제출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리기주의적으로 동톡안이한 학교의 그영향이 좃치안이한 까닭을 잘리해하여야한다

문 지금 춘경기를 맞하야 남조선에는 비료가 전연없으니 이의대책은

답 삼척 인천비료 제조회사를 다시 움게되였다 각지방으로 교육대를 보내서 비료가있는데는 유효하게 쓰도록 장려한다 한편으로는 목화씨 수어유(水魚油) 콩깨목 퇴비혼성 비료 분요통대용비료 사용을지도하고있다 경복에는 백만원의 보조금을 주어 『헤리비치』『아스파라까스』씨를 채취하는 비료 증산에노력하고있으며 이리하야 금비대용의 비료를 리용하야 지질을 좋게해서 춘경을하도록한다

不正援護團體는 徹底히肅淸하겟다

전재민원호단체는 해방후 우후의죽순처럼생기여 혼란한과도기에있어 동포상애의큰공뎍을 이룬단체도 만었오나·외외에도 한편에는『원호』라는미명밋에 사복을 채는 단체가 있어 건국조선을좀먹고있다 이들 원호단체 에대하야 『러ー취』군정장관은 십九일 기자단에게이를 철저히숙청하겟다고 소신을 말하바있었다

지금원호단체는 두가지가있다 그하나는 고아원 양로원 수용소동인데 이것은매우성적이조라 그외의 전재민사설원호회가있는데 이것은매우조치못하다 이원호단체들은 광범위로부패(腐敗)하여있고 냉정한것이만라 그러고무질서한결과로 리재민수용소의위생상태는 생명도위태할만치 조치못한곳도있다 이후로는재산관리를엄격하게바더야할것이며 그단체의직원들보다 전재민을위한책임을가저야할것이다 기본금은자기네주머니에서나온것이않이고 一반에게서바든 의연금(義捐金)인것을잘알어야한다 군정청에서는 이문제가극히조치않키때문에 책임을늣기고있어 엄격한감시와 통제를하겟다 이들부정단체는이미처벌당한곳도있고 지금열한명이나취조중에있서 적상이확실하면 엄벌할터이다

建國에一翼 우리將校指導로 國防準備隊新發足

조선국방 경비대가 창설될때 미군장교가 기본적규정과 훈련방침을 제정하는데 고문자격이상의 역할을 다하고잇섯다 그러나 오지음、조선이 평화가 완전할 책임을 수행하려는 열의와 능력을 나타내고잇스므로 국방국장 『참페나』대좌는 이 국방경비대에대하야 지휘와 명령을 순전한 조선어만을 사용하는동시 미국장교의 활동범위도 감독과 고문에 긋칠것을 발키엿다 이로써 국방경비대원의 승진과 임무배치에있어서 영어통화능력을 따라 종래 특전을 주고잇든것도 중지하기로 결정하엿다 따라서 경비대의 상비적지배와 운영은 전혀 조선인장교가 전책임을 지기로되여 압포로 만흔 활동이 기대된다

咸興十餘男女校生 米穀問題로示威

死傷二十八名·檢束七百餘名

식량의결핍으로인하야 기아를못이긴함흥(咸興)시내 중등학교十여교의남녀학생과 함흥의전 함흥농업등은각각 三월十一일、十二일양일간에 식량문제해결책을 함남인민위원회당국에 간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이에 격분한각교학생등은 또되어十三일오전十시경에 시위운동을이르켰는데 이제이건에직접파여한 김한철(金漢喆)씨의 담화를들오면다음과갓다

이번 폭동의 근인은 결국 식량문제로부터 발단한것이지만 이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은 인민위원회당국 특히 경찰대와 보안대의 행동에대한민중의폭발의 일현상이라고 보지않을수없다 이번사건의 중추는 학생층의완전한 총출동으로 발생되었오며 참가교는 咸興醫專、永中、南中、咸農、咸商、興南工業、咸南高女、永女商、咸興女子實業、南商等 외十여교의 총동학생수 三천여명이며 기타 함흥시내 일반청년층 민중들의 통정적가맹이있어 시가시위행진 당일인 十三일의 가두풍경은 때아닌 선풍을 이르켜 거리의왕래는 물론 일반상점도 문을따치엿다 이번시위행렬에서 보안대의발포로인하야즉사六명중상사(重傷死)三명 중상자二十명 검속구금당한 시민은 七백명이나된다

建國記錄 寫眞展覽會

새조선외사진 기술을 발전향상시키고저 보도사진동인으로 조직된조선사진기록문화사(寫眞記錄文化社)에서는 이십일부터 일주간 종로화신『깨러리』에서 건국기록사진전람회를 열기로되바八·一五해방이래 최근에이르기까지 다음과같이동아、한성、본사三사보도사진반원외고심한 력작백여점이진열되리라하며 각자씨명은 아래와갓다

白麟善、崔稿洲、金顯達、方三成、崔春德、李泰衍、蔡訓

華北同胞名簿(四)

趙點榮(咸安)崔泳寅(咸安)尹英斗(金海)金小寬(金海)河相國(金海)金文泳(統營)金幸壽(統營)韓請洙(高陽)金尙鎬(大同)金相洙(博川)金永玉(統營)李明潤(昌原)李監哲(楚山)咸永燮(楚山)宋泰一(義城)金敬遠(固城)金鍾武(金海)鄭點萬(咸安)朴光根(昌原)金鍾根(咸安)金榮男(瑞山)鄭甲龍(統營)崔奎錫(固城)金良準(統營)鄭仁榮(靑陽)李文永(天安)金明俊(燕城)金煥讚(燕岐)金三鉉(固城)姜文道(論山)趙德燮(咸安)韓國燦(博川)金日榮(京城)金漢坤(唐津)李集天(裡里)李明勳(博川)文義道(釜山)姜午天([illegible]州)金伊兆(密陽)金相甲(定州)盧昌植(晋州)南道熙(京城)韓成福(永興)郭玉述(京城)李光浩(博川)盧元來(鏡川)(完)

安養婦人講演會

안양부인회(安養婦人會)에서는 회장 장일선(張一善) 부회장 이개남(李季男) 양여사외 전회원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여성운동에매진하고있는데 지난三월十五일에는 서울독립촉성부인단(獨立促成婦人團) 허영순(許永淳)씨를 초청하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旅客運賃引上

十五일부터 실시예정이든운수국 여객운임은二十五일부터일부개정하야실시키로되엿다

朴興植公判

上月中將等召喚決定

세인의주목을끌든 화신사장 박흥식(朴興植)의 장물기장(贓物寄贓) 혐의 포고령위반등 전무취체역 박병교(朴炳敎)의포고령위반사건제一회공판은 十九일오전十시반부터 경성지방법원대법정에서 신내영(申乃永)검사립회아래 리천상(李天祥)판사주심으로열렷는대 개정정각전부터 모혀든천여명의 방청객으로 해방후처음으로 사용케된 대법정도입추할여지도없이 초만원을이루었으며 특별방청석에는사법부장김영희(金永羲)씨 검사총장리종성(李宗聖)씨와제씨도 참관하엿었다 이날 심문은 먼저 박흥식의장물기장 청령사건으로부터 개시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朝鮮飛行機工業株式會社)사장으로 취임하게된 동기를뭇자、방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당국에서 징병제실시에대한 기념사업으로 전쟁수행에 불가결인비행기 제작회사를 만들러이니 사장으로취임하여달라고 루차 권유하여왓섯스나 이런 회사를운영해나갈 자신이 업섯슴으로 거절하엿늘데 너머 완강히권함으로 부득키 인수하게 되엿다고 할변하엿으며 또 군부로부터 출게 四천八백五十만원을바려 일부는 비행기회사의 주주(株主)에대하야 [illegible] 리와 자산정리로 지출하였고 일부二천만원은 박흥식자신에대한 위로금으로바뎟는데 자기는 여기에다三천만원을 더보래여 五천만원으로써 건국사업에쓸라고 계획하엿다고 답변하엿는데 심문을 오후영시반 할단 휴게하엿다가 오후一시반부터 재개되엿다 오후에는 화신이 작년十一월十五일 재개점당시 상품의 가격을 결정케된 경위와 특배품의 처분 기타에대한 심문으로 동三시반에 제一회공판을끗마치엿는데재판소에서는 전 조선군사령판 상월(上月)중장등 경리부장 송본(松本)소장을 증인으로 소환키로하엿는데 다룸공판은二十六일이다(사진은공판광경에선박흥식)

第一回 漢城市町對抗蹴球大會

日時 三月廿八、九、卅日 三日間

場所 서울運動場

每區에서 二團體式出場

申請期日 三月廿五日午後四時까지本社體育部

主催 朝鮮蹴球振興會 後援 漢城市廳 朝鮮日報社

觀覽料 十圓 均一

體育 籠球選手權爭霸戰

朝鮮籠協主催 第一回全國男女綜合籠球選手權大會는 二十日부터二十三日까지 서울運動場에서 擧行하게 되엿는데 第一日成果는다음과갓다

◇男子部(二十日)A成興對遞信、B延專對軍政廳、C金融團對世專、D普專對有信(二十一日)A勝者對稅務署、B勝者對平壤、C勝者對世紀社、D勝者對新興

◇女子部(二十日)A徽明對同德、B梨花對淑明、C女子商業對淑明俱樂部(二十二日)A勝者對梨大、B와C勝者의對戰 二十三日決勝戰

金桂祚에게 五年役言渡

追徵金은三百十萬圓

감계조(金桂祚)사건언도는 十九일오송금(吳承根)재판장으로부터 징역五년과추징금 三백十만원을언도하엿다

美國看護婦募集

군정청에서는 미국 뉴ー욕산파학교지원자를모집중이라는데 응모자격은고등여학교졸신산파로서 자질이력서 호적등본 졸업증서 산파면허장 일개월이내건강진단서 최근에찍은사진한장을가지고 삼월二十三일까지 보건후생국간호사업과(保健厚生局)에와달라고한다

거리등이켜젓다 깁든밤부터·차々시설

박석고개에 불이켜젓다ー 경성전기회사에서는 십팔일부터 시내돈화문(敦化門)압에서 동소문(東小門)마로턱에 이르는사히의 가로등서른두개에 각기백촉등을 켜서 오해간만에 침침하든 서울거리의 일부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엿다 경전에서는안으로 시청과연락하야 긴급한곳부터 차례로 가로등을 켜라고 자재를 준비하고있다한다

新刊紹介

月刊『民族文化』創刊號

조선의 새로운 민족 문화의건설과 발전을위하야 이번 서울장곡천정(長谷川町)一一一번지에 조선민족문화연구소(朝鮮民族文化硏究所)를 창립하고 그기관지로 월간잡지 『민족문화』를발행 하기로되엿다하며 특히신진학도들에게만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참가를 바라고잇다하다 소원은 윤행중(尹行重)씨 이하十七인이다

氣象

氣象觀測 曇天後晴

予報ー 西風이불고 흐리나차차 개이겟다

氣溫ー 十九日朝最低零下○度五 最高 二二度五

曆

二十日(水曜)陰 十七日 干支 癸巳 ▲日出 午前六時五十九分▲日入 午後六時四四分▲月出 午後九時七分▲月入 翌日午前八時二分▲滿潮 午前六時四八分午後七前○分▲干潮 午前○時四○分午後○時五八分

오늘의 라디오

午後▲五·○○時報▲五·一五國史講座 金道泰▲五·三○어린이時間▲六·○○音樂▲六·一五公知事項▲六·三○秦浩放送▲七·○○時報▲七·一五時事解說아펜셀라講告▲七·三○佛敎時間▲七·四五民主義院時間▲八·○○『꿈마지밤』▲九·○○時報▲九·三○英語講座▲一○·○○音樂

餘滴

▲왜색(倭色)을 아조깨끗이 업새는데 너나할것업시힘써야할것을 두고두고주장해온바이나▲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왜말이흘톡튀어나오니 딱할노릇▲가장신성해야할법정안에서까지왜말이간々이 석기는것은톡히주의해야할일▲왜사람의일홈이나 지명가튼것은할수업지만 보통말에 왜말은버릇이된때문▲또한가지 유감되는것은 법정안와질서가 다소문난한것은하로바삐고처가르칠일이다

社告

지난三月十一日午後九時부터 本社에서 [illegible] 紛失하엿는데 或이런事實을 보신분은 左記場所로通知하아주시면 謝禮로 壹萬圓을드리겟습니다

寫眞番號 ○三一八○一一八八九一 國防色

서울社稷町 二三八番地 李 [illegible] 拜

한글독본 朝鮮語學會 鄭寅承先生編

오래기다리시게하든 「한글독본」이 發行되엿습니다 全南北地方만은 全州에서 印刷하는것으로配本하겟사오며 其他地方은 本社로 注文하시옵 送金을 다려 郵送하시겟습니다

☆中等學校 初等 國語讀本 定價 十五圓

京城府米倉町九五의十六 正音社

齒磨粉新發明案內

[illegible] 來譜般物資困難을克服하야 古來로發明이없든 [illegible] 齒磨를新發明하와 多數의 物品을 製造하엿사온데 從來普及品과는 달니衛生上保證은 勿論이오 香味가 淸新하며 粉이散飛치안는 世界의 唯一無二한物品이오며 廉價로 提供코자하오니 江湖諸賢은 一次試驗後에 애용하여주십사 하나이다

西紀一九四六年三月 日

서울市中區壽町一八九 (黃金町四街 電車停留場前)

東洋齒化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②四○六四番

梅毒 十日內治

淋疾痔疾 [illegible]

음 一日 [illegible] 卽治

姙娠藥 三個月服用後 卽姙娠 子宮冷症 子宮後屈、子宮發育不振、子宮炎小、不感症、赤白帶下、[illegible]、婦人病自然退治

丙戌年怪疾(코레라)神藥

即時起死回生 大人用六十圓 小人用三十圓

(臨時豫防卽効)

漢城市中區五角町十一의一 濟蒼局

貧金을求함

現在盛業中의重要企業으로 一千萬圓以上의增資必要

漢城市西界町二九四 (金斗浩內科隣) 共信社內 吳

임질 매독

淋疾梅毒 根治

서울鍾路五丁目三 金剛堂藥房

印材

彫刻用赤五星板上品 木拓小判棒及丸棒 學生及事務用達 名刺紙製造大販賣

서울市西大門町一丁目六

製造元 福來社

電話光③四一三 振替京城一三五九

石義澄大人(鎭衡氏)는老患으로 去二月廿四日午前一時半北鮮平康郡 佳谷里農園에서別世하시와二月廿八 同地에서火葬을 모셧合니다三八線 封鎖에因하야서至今이야 訃告兼通知 합니다

丙戌三月廿日

漢城市新堂町三五五二二의一八

嗣子 石義澄

孝澄

親戚 金明學

金鳳變

石元澄